

2014. 4. 14. (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창조경제팀 박준국 팀장 (02-731-2410)

국민경제자문회의 코넥스시장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코넥스시장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4월 24일(목)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코넥스 시장 현황과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코넥스시장의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경수 이사장 등 한국거래소 대표와 상장기업 대표 3인,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3인, 금융투자업체(지정자문인) 2인과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4인 등이 참석하여 생태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 인지도 제고 및 투자자 유인 확대 등 단기적 거래 활성화 대책과 병행하여, 주가 등 장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투자시장으로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대상의 분석자료 발간, 매매방식 변경 등 제공되는 기업정보의 양 및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코넥스에서 나스닥으로 직접 이전 상장하는 기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고위험 고수익” 중장기 기업투자의 성공사례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상장 후에도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행 IPO 위주의 Exit 환경에서는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곤란하므로 M&A 시장 확대를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해외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기업 및 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M&A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달라는 현장의 제언도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창조경제를 가시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코넥스시장으로 대표되는 창조경제 지원 금융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인 처방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전체 시장의 힘을 키우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의된 내용과 정부정책 중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